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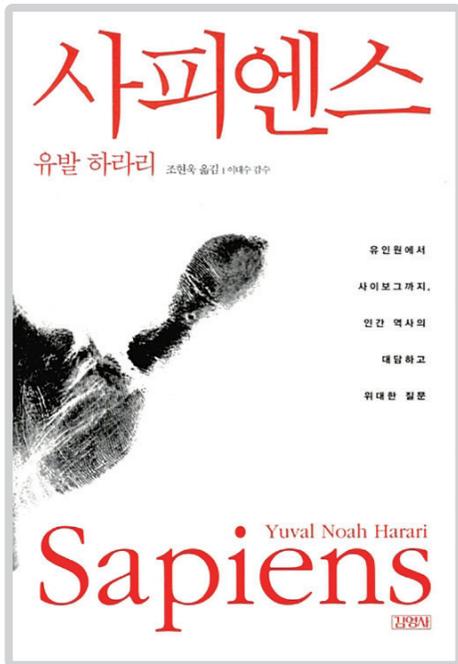
도서관 정보



집콕족을 위한 '벽돌책 깨기' 프로젝트

책은 1,000페이지가 기본! 베고 눕기가 적당하고, 비상시 방어용으로 좋다. 하지만 압도적인 페이지 수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벽돌책'! 집순이, 집돌이, 코로나로 강제 집콕 중인 분들에게 권해본다. 완독 후 해냈다는 성취감, 두꺼웠던 페이지 수만큼 다양한 식견과 견문이 넓혀지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란다.

글 고양시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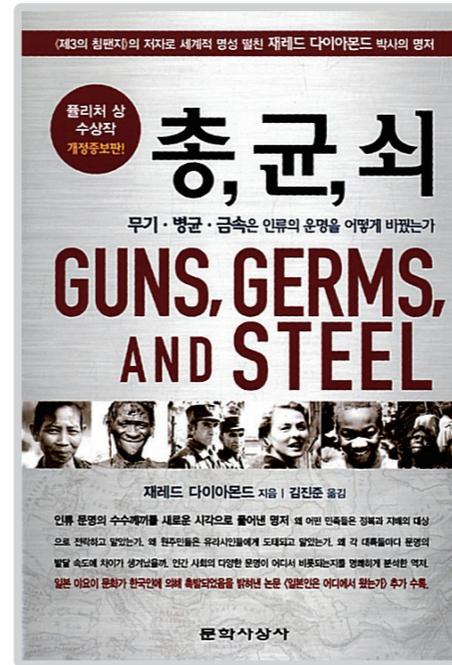
#1 무엇을 인간이라 할 것인가_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출판사 김영사 페이지 636p

인간이란 무엇인가? 선사시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던 인간이 지금의 문명을 이루고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찰, 과학혁명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방대한 인류발전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인간의 생리기능, 면역계, 수명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책을 통해 인류가 멸종할 것인지, 더 나은 진보를 이룩할 것인지,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책속한줄

“산업혁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의 혁명이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산업혁명은 되풀이해서 보여주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일한 한계는 우리의 무지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 병균, 금속_총, 균, 쇠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출판사 문학사상사 페이지 752p

질병과 세균은 문명이 발전하듯 '자연선택'을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세균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인간으로 새로운 숙주를 찾아 이동하면서 아직까지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책은 여러 가지 질병을 예시로 들면서 세균이 어떤 질병을 유발하고 어떤 과정으로 소멸해 가는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질병은 어떻게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지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세균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하지만, 이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세계에 포진된 다양한 문명을 문화 인류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라 할 수 있다.

책속한줄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병원체들은 점점 더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관계 속에서 서로 움짱달짝 못하게 되었다. 패배의 대가는 어느 한쪽의 죽음이며 자연선택이 심판을 맡고 있다.”



#3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_생각에 관한 생각

저자 대니얼 카너먼 출판사 김영사 페이지 728p

내 생각도 내가 어찌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하나!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의 저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소소한 곱셈 문제에서부터 그림 문제, 도형 문제, 그리고 어려운 살인 사건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대도시 택시 뺑소니 사건 등 수많은 퀴즈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하나씩 시간을 들여 풀어보고 생각해보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 퀴즈들은 모두 위대한 사회과학 이론의 토대가 되는 연구의 시발점이다.

책속한줄

“문제 5: 동전 던지기 도박을 제안받았다. 동전 뒷면이 나오면 100달러를 잃는다. 동전 앞면이 나오면 150달러를 판다. 이 도박은 해를 만하냐? 도박을 하겠는가?”